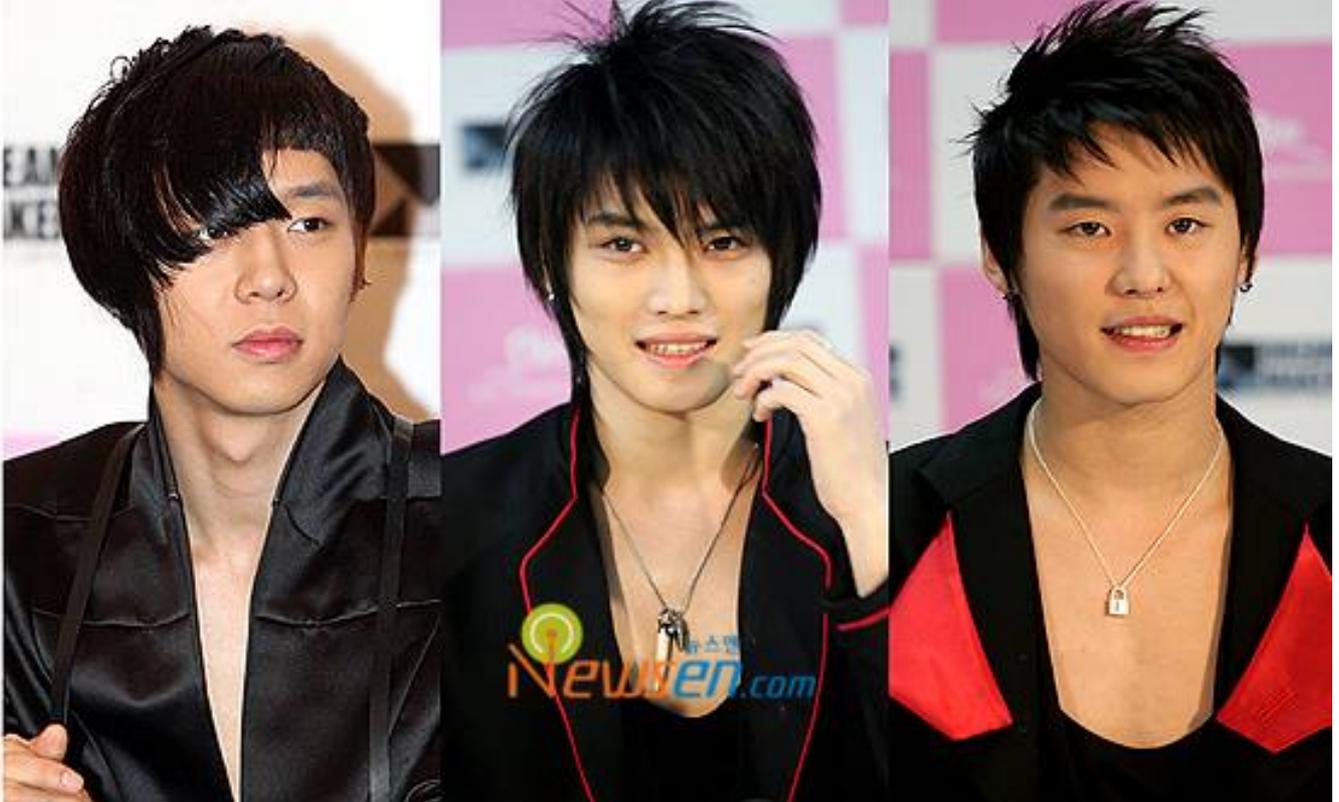


동방신기vsSM, 끝내 합의결렬..판결은 9월 내 날듯

입력 2009. 9. 15. 17:27 · 수정 2009. 9. 15. 17:27



[뉴스엔 이미혜 기자]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간 법정 분쟁 결과가 9월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.동방신기 시아준수(본명 김준수), 영웅재중(본명 김재중), 믹키유천(본명 박유천)과 SM엔터테인먼트(SM)간의 전속계약 분쟁관련 합의가 결렬됐다.

재판부는 9월 15일 뉴스엔과 전화통화에서 "쌍방이 9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했다. 양측이 이런 저런 주장이 펼치고 있어 합의는 안 된 것으로 보인다"며 "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판단이 서면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게 된다.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과는 9월 안에 날 것이다"고 밝혔다.

동방신기 세 멤버와 SM은 지난 9월 11일까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,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법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. 당시 법원은 "심문은 이날 한차례로 마무리하고 3주 뒤인 9월11일까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"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.

SM 측 관계자는 "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.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"고 밝혔다.

이미혜 macondo@newsen.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@newsen.com손에 잡히는 뉴스, 눈에 보이는 뉴스(www.newsen.com)copyright© 뉴스엔.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

뉴스엔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